

틸러슨 “北 핵 보유국 받아들이 수 없다”

“북한 준비 안되면 대화 못해
갈수록 압박 강력해질 것”
한미 군사훈련 결정된 바 없어

렉스 틸러슨(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만나 북핵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캐나다 CBC뉴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까지 이러한 (대북) 압박 캠페인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북 압박 캠페인을 증진할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당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국제 공동체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덧붙였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외교적 압박”이라면서 “백악관은 북한과의 외교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외교 해법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프리랜드 장관도 “국제적 압박 캠페인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 캠페인의 성공적인 결과물은 외교적 개입”이라고 언급,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통해 결국은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두 장관은 내년 1월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직

전의 시점이다.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해 북한과 싸웠거나 유엔군을 도운 국가들이 초청 대상이며, 일본·인도·스웨덴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CBC뉴스는 이 회의에 참석할 일명 ‘밴쿠버 그룹’이 군사 행동을 피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도록 공격적인 외교 캠페인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최국인 캐나다는 이번 회의가 6자회담과 같은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시동을 거는 열쇠가 될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 시 평창올림픽 기간에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문제인 대통령의 미 NBC방송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이나 일본의 동맹과 오랫동안 해온 정기 군사훈련을 멈추는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 상무부, 반덤핑 과세 판정
한국 단섬유 45%까지 부과

미국이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SF)’에 최대 45%의 반덤핑 과세를 내리기로 예비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PSF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으로는 다운나라와 휴비스에 각각 관세율 45.23%가 부과됐고 나머지는 30.15%를 매겼다. 도레이케미칼에는 0%를 부과했다. 중국 기업엔 63.26~181.46%가 부과됐고, 인도엔 2.66~21.43%를 내렸다. 대만 업체들이 부과받은 관세율은 0~48.86%다.

이번 조사는 DAK아메리카, 남아플라 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4개 업체가 이들 4개국의 반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제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 상무부는 내년 5월 11일께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세 데니어 PSF는 자류이 3데니어(섬유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 미만인 단섬유로, 주로 의류, 침구류 등 직물, 기저귀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PSF 수출량은 지난해 1058만 달러(약 114억8000만 원) 정도다. /연합뉴스

미 언론 “한국 연예산업 ‘헝거 게임’ 같다”
사이니 종현 사망 조영...WP 등 높은 자살률 주목

“한국의 연예산업은 강한 압박으로 유명하다. 마치 ‘헝거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사이니 종현의 사망을 계기로 K-팝 산업의 이면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한국의 연예산업이 잔혹할 정도로 강한 경쟁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를 ‘헝거 게임’에 비유했다. 수전 폴린스의 SF 소설이자 시리즈 영화로도 제작된 헝거 게임은 미래 사회에서 12~18세 소년·소녀들이 한 사람만 살아남는 생존 경쟁을 펼치는 내용이다.

재능을 지닌 많은 아이들 지망생들이 기획사의 철저한 관리 속에 연습생으로 혹

독한 훈련을 받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스타로 탄생하는 K-팝 아이돌 양성 시스템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버라이어티는 “난 속에서부터 고통 났다. 천천히 날 감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잡아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고 쓴 종현의 유서를 소개한 뒤 한국의 스타들은 모든 동료가 경쟁자가 되고 오로지 강자만이 살아남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버라이어티는 지난 1996년 자살한 가수 서지원부터 가수 유니, 텔런트 정다빈, 장자연 등을 예로 들면서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 연예산업의 어두운 이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스

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종현의 선택을 명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K-팝의 화려한 앞면 뒤에는 그늘에 가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WP)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타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했다. WP는 종현의 사망이 전 세계 팬들로 하여금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며 2015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밝혔다.

LA타임스도 “K팝 스타의 죽음은 한국 자살문제에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화려하고 젊은 음악산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오명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동산 수입액은 6억3700만달러로 작년보다 35.5% 줄었다.

미국산 석탄 수입액도 7억4800만달러로 작년보다 187.0% 증가했다.

과거 미국에서 거의 수입되지 않던 원유, LNG도 작년 4분기부터 크게 밀려들기 시작했다. LNG는 지난해 수입이 거의 없다가 올해 6억7300만달러 어치가 도입됐다. /연합뉴스

美·日 국민 80% “북한, 군사적 위협”

요미우리신문·갤럽 조사

미국인들 가운데 80% 이상이 자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지역으로 북한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 함께 미국과 일본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국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일본에서는 83%가 북한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이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미국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답변이 80%를 넘는 것은 요미우리가 같은 질문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이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로 일본인들은 중국(67%), 러시아

(50%), 미국(31%), 한국(30%)을 꼽았다. 일본인들은 중동(29%)보다 한국이 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인들은 북한에 이어 중동(63%), 러시아(55%), 중국(51%), 아세안(23%), 한국·일본(각 2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위협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일본인의 66%는 ‘크게 느낀다’, 21%는 ‘다소 느낀다’고 답했다.

미국에서는 ‘크게 느낀다’가 41%, ‘다소 느낀다’가 44%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답변도 일본에서는 82%, 미국에서는 79%로 나타났다.

대북 대응 방안으로 대화와 압력 가운데 무엇을 중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에서는 압력 52%, 대화 40%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압력 56%, 대화 37%였다. /연합뉴스

동아태 차관보에 ‘틸러슨파’ 손턴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직업 외교관인 수전 손턴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임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수전 손턴

1년 가까이 차관보 대행에 맡아온 수전 손턴은 상임의 인준을 받으면 대행 ‘꼬리표’를 완전히 떼게 된다.

그동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동아태 차관보로 손턴을 지지해왔으나, 백악관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공식 임명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손턴의 임명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턴은 1991년 국무부에 입부해 중국과 구 소련 등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연합뉴스



25년 전 냉동 배아 출산 미국 테네시주에서 한 부부가 25년 전 냉동 보관한 배아를 이식받아 출산에 성공했다고 CNN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 부부는 1992년 10월 14일 냉동한 배아를 이식받아 지난달 키 50.8cm, 몸무게 2.94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 이 아이는 역사상 가장 오래 보관된 냉동 배아로 태어났다는 기록을 갖게 됐다. 기존 최장 기록은 20년이다. <CNN트위터 캡처=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육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천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